

고산고가 오순도순

허기진 청춘들을 위한, 청춘의 고(高)순도순

“오늘도 아픈 청춘들은 배가 고프다. 그리 맛있는 급식을 먹어도 허전한 배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모양이다. 허기진 가슴만큼. 그래서 오늘도 고(高)순도순 학교 매점이 있는 북카페는 공허한 청춘들의 집합 장소다.

고산고 핫 플레이스가 많아졌다

때론 먹을거리로, 때론 수다 장소로, 때론 문화 공연으로, 때론 토론의 장으로, 때론 학습터로 고(高)순도순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고산고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고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고(高)순도순은 작년 11월에 개소를 했다. 공립형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로 기숙사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간식 및 생필품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껴 2018년부터 2년여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개소하게 된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공동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먹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연대하여 4주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경제교육 공동체로 거듭날 기반이 될 것이다.

완주의 1호이자 전북의 5호 학교협동조합

완주의 1호이자 전북의 5호인 고(高)순도순 학교협동조합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다. 학교마다 모두 다른 요구와 필요가 있는 만큼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은 완성형의 명사가 아닌, 진행형의 동사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 학생자율동아리 ‘고(高)순도순’ 활동이 더욱 귀하고 귀하다. 화요일 밤에 모여 어떻게 매점을 운영해 갈지, 매점 수익금을 어떤 사업으로 공동체에 이롭게 분배할 것인지 회의를 하는 아이들의 눈이 빛난다.

그 결과 올해는 벌써 사업을 몇 개나 추진 중이다. 3월에는 학교협동조합 이해교육 및 완주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4월에는 고산 세월호 기억모임과 연대하여 기부금과 더불어 세월호 추모엽서를 자체 제작하여 추모 천막에 기증하였다. 5월에는 5.18 재



단과 연대하여 고산고 동아리들이 주관한 '미안마 민주화 응원 바자회'를 계획 중이다. 협동조합 내에 있는 디저트 카페 및 일러스트 동아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또 어떤 도전들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분명 꽃처럼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될 것이라는 확신

봄이다. 봄은 언제나 경이롭다. 어떻게 뽕뽕 얼어붙었던 땅에서 저리 여리고 고운 생명들이 피어나는지... 어떤 시인의 말처럼 누가 저걸 냉동 재론 줄 알겠나.

봄처럼 경이로운 존재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 '언제나 봄이 올까, 봄이 오기는 할까?'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면서도 조금씩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색과 모양을 내기 위해 꿈틀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봄을 생각한다.

고(高)순도순이 왜 있는 거지? 어디쯤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같이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있기에 분명 꽃처럼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규원이 말처럼 말이다.

1학년 때 협동조합의 개념을 알고, 2학년 때 협동조합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몸소 체험한 과정을 거쳐, 3학년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앞으로 제가 살아갈 경제적인 삶에 기반이 될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다 함께, 다 같이'를 추구하는 노력이 참 빛났습니다.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규칙만 세우며 행동반경을 좁히는 노력이 아닌, 이타적이고 합리적이게 조금씩 조금씩 학생들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수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고(高)순도순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학생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넘어 학교와 지역 사회가 교류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글·박현숙
고산고등학교 교사